

거리두기 해제, 일상회복 본격화... 유통업별 '온도차'

집 밖으로 나온 소비... 허리띠 졸라매고 국내여행 떠났다

6월 방역규제 중단 두 달 차
물가 고공행진으로 소비 위축

숙박·음식점·교통 소비 늘어
폭우에 스포츠·레저용품 주춤
e커머스 거래 전월 대비 줄어

방역규제 전면 중단과 사상 초유의 고물가 현상을 맞닥뜨린 6월의 유통가 상황이 각종 지표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5월 야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로 야외 활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업계 관계자들은 e커머스 거래액 비중이 줄고 오프라인 산업의 부흥을 기대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월 동기 대비 백화점과 편의점만이 거래액이 늘었고 e커머스 거래액은 전년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출과 관련된 지표들은 소극적으로만 늘었다.

2일 통계청이 7월 소비자물가동향과 함께 지난 6월 유통산업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통계지표들을 발표했다.

당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0.6%p 상승한 6.0%에 달했으며 생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7.4%, 식품이 7.7% 상승했다. 식자재와 식품 물가가 모두 오르면서 점심을 뜻하는 런치와 물가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친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은 지난 7월31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가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업 태별로 살펴봤을 때 백화점, 편의점은 판매액이 늘었으나 나머지 모든 소매업태의 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 백화점은 9.5%, 편의점이 4.4% 판매가 늘었으나 슈퍼마켓 및 잡화점이 -5.1%, 대형마트가 -3.9%, 면세점이 -0.1% 판매액이 줄었다. 야외활동이 늘면서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가 3.8% 늘기도 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판매는 오히려 0.1% 줄어 들었다.

대면 서비스가 늘면서 앞선 5월 서비스업 생산이 전월보다 늘어난 1.1%를 기록했으나 6월에는 전월 대비 0.3% 줄어 들었다. 특히 예술·스포츠·여가 등 방

역규제 해제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던 부문이 4.9% 줄었고 숙박·음식점 1.7%로 전월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로 볼 때는 예술·스포츠·여가 부문은 27.1%, 숙박·음식점은 18.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 A씨는 소매업태별로 살펴봤을 때 편의점의 판매액이 상승한 데에는 국내 여행과 일상 회복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편의점은 골목 상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관광지와 큰 규모의 집객이 이루어지는 공연장 인근 등에서 크게 매출이 상승한다"며 "이러한 까닭으로 국내 여행이 활발했던 6월 편의점 판매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6월은 런치플레이션이 가시화하면서 편의점 도시락 판매액이 크게 늘고 각 편의점사가 소포장 신선 식재료 상품 등을 출시한 때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화하면서 6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도 118.3(2015년=100)으로 전월보다 0.9% 줄었다. 소비 감소는 3월(-0.7%), 4월(-0.3%), 5월(-0.2%)에 이어 넉달째 이어지고 있다. 소비가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1997년 10월~1998년 1월 이후 24년 5개월 만이다. 2월에는 포함, 1월에는 2.0% 감소였던 것을 고려하면 실제 소비 침체는 넉달 이상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6월 온라인 쇼핑동향'에 따르면 6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총 16조7806억원을 기록했는데 전월 대비해서는 거래액이 3.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는 1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 대비 야외 활동을 위한 상품의 거래액이 크게 증가했다. 여행·교통서비스 102.0%, 문화 및 레저서비스 121.6% 등이다. 전월 대비해서는 외출을 위한 자동차 및 자동차 용품 거래액이 21.7% 늘었으나 정작 의복이 16.9% 감소했으며 스포츠·레저용품이 11.9% 줄었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 B씨는 "6월은 강우량이 많았던 때기 때문에 외출을 위한 준비물이 리오프닝에도 상대적으로 많이 판매되지 않은 것"이라며 "문화 및 레저서비스에 포함되는 영화 등은 날씨와 관계 없기 때문에 판매량이 늘었지만 날씨 영향이 큰 스포츠·레저 용품 거래액은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 기준 6월 중비가 온 날은 15일에 달한다.

업계는 7월 지표에서도 소비심리 위축이 뚜렷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 중이다. 마트업계 관계자 C씨는 "물가 상승률이 몇 개월째 상승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알뜰 소비를 하려는 고객들을 위해 할인 기획전 등을 활발히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홍콩·마카오 경제, '제로 코로나' 그늘 갇혀 "한식 경제파급 23조, 車 52만대 판매효과"

● 차이나 뉴스&리포트

홍콩, 1·2분기 마이너스 성장
봉쇄로 소비 등 경제활동 마비
마카오, 카지노 수익 사상 최악

'아시아 금융 허브' 홍콩과 마카오의 경제가 예외를 용납하지 않는 '제로 코로나'에 발목을 잡혔다.

홍콩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고, 봉쇄가 이어진 마카오는 카지노 수익이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홍콩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다. 시장 예상치(-0.2%)를 크게 밑돈 수치다. 봉쇄는 다소 완화됐지만 주요국들의 가파른 금리 인상과 글로벌 무역 악화의 직격탄을 맞았다.

앞서 홍콩 폴 찬(Paul Chan) 재무 장관은 1분기 -4%에 이어 2분기에 역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1~2%로 제시했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콩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모두 불리했다.

홍콩 역시 중국 본토식 방역정책을 고수하면서 소비 등 경제활동은 마비됐고, 달러 페그제(달러 연동 환율제) 탓



한 여성이 홍콩 증권거래소 앞을 지나가고 있다. /AP·뉴스1

에 경기 침체에도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선택해야 했다.

DBS그룹 사무엘체 경제학자는 "최근 소매 판매 및 수출 등 데이터를 감안하면 성장을 악화는 예상했던 일이며, 하반기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대외 수요부진과 금리 인상"이라고 밝혔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로이드찬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봉쇄 완화에 따른 내수 회복이 하반기 성장을 일부 뒷받침할 수는 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심각한 역풍 역시 감안해야 한다"며 "연간 경제성장률이 0.1%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카오 역시 지난달 도시 봉쇄가 이어지면서 최악의 경제 위기에 빠졌다. 마카오의 7월 카지노 산업 매출은

4900만달러로 지난 2009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하면 무려 98% 급감한 수준이다. 카지노가 마카오 정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한다.

마카오도시 봉쇄는 지난달 23일 일부 완화됐지만 여전히 식당 내 식사와 일부 시설은 폐쇄된 상태. 이와 함께 중국 국경은 여전히 막혀있어 주 고객층인 중국인들의 방문은 거의 불가능하다.

번스타인 비탈리 우만스키 애널리스트는 "지금 마카오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언제 조치를 취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제로 코로나'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안삼미 기자 smahn1@

대한상의, 국가발전 프로젝트 시즌2
최태원 기획... '한식의 산업화' 추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식품 산업은 호황인 가운데 한식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23조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자동차 52만대를 판매한 것과 같은 효과라는 분석이다. 이런 분위기 속 대한상의가 한식의 산업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발전 프로젝트 시즌2의 주제를 발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국가발전 프로젝트 시즌2'의 주제는 '한식의 산업

화'라며 추진 배경과 목적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국가발전 프로젝트 시즌2의 주제를 '한식의 산업화'로 정한 이유는 민간 차원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한상공회의소는 한식의 성공적인 산업화를 위해 오는 9일 경제 토크쇼 '식자회담(SBS)'의 방영으로 프로젝트의 첫 포문을 연다. 식자회담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직접 '식자단장'을 맡아 식자단의 의견을 종합하며 토크를 이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최빛나 기자 vitna@

"노조 파업시 산업계 구조원 손실 우려"

>> 1면 '3고로 기업부담'서 계속

현대제철은 특별공로금 등의 갈등이 겹치면서 올해 임단협 타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할 경우 현대제철 주요 생산 공장에서 파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임금 교섭 과정에서 대립했던 삼성 전자 노사는 최근 잠정 합의에 성공했다. 그동안 공동교섭단이 반대해 온 2021년·2022년 임금 교섭 병합도 이번 합의에 포함됐다. 공동교섭단은 삼성

전자사무직노조, 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 삼성전자노조동맹,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삼성전자에 설립된 4개 노조로 구성된다. 다만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임단협 교섭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회사 경영이 힘든 상황에서 노조가 선부르게 파업에 돌입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파업에 돌입할 경우 산업계 손실은 구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성운 기자